

작고 가벼운 주방용품 '인기' 주부·노인 겨냥... 손목 부담 줄여

뉴스카페

지난해부터 '집밥'(집에서 해 먹는 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리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주방용품 제조업체들은 자취생, 남성, 신혼부부 등 '요리 초보자'를 위해 작고 무게를 크게 줄인 주방용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초경량 주방용품은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부담 없을 뿐 아니라 손목터널증후군 같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주부와 노인에게도 반응이 좋다.

한국도자기의 주방용품 계열사 한국도자기리빙이 선보인 초경량 '데이지 후라이팬'의 무게는 475g(26cm 기준)이다. 기존 프라이팬 무게의 절반도 안 된다. 김영목 한국도자기리빙 대표는 "'혼자 요리하는 노인이 많은 일본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요리할 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소한의 무게로 기획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무게는 줄였지만 바닥면의 두께와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 공법으로 제작했고,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 내구

성을 높였다. 프라이팬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한 손잡이는 속을 비워 중량을 최소화했다. 여성스러운 패턴을 새겨넣는 등 디자인까지 신경 썼다.

주방용품 스타트업인 피에나는 텀블러와 블렌더를 합친 초경량 주서기 '쿠카'(사진)를 출시했다. 무게가 480g으로 가벼워 여성들이 핸드백 속에 넣어 다녀도 무리가 없다.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이 디자인했다. 기술연구팀에서 직접 개발한 3D(3차원) 칼날이 회오리 기둥을 형성해 식재료를 부드럽고 촘촘하게 갈아준다. 회사 관계자는 "아이들 이유식 만들기에 적합해 아기 엄마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미국 주방용품 브랜드 옥소의 '초경량 실리콘 젓가락'은 스테인리스 젓가락보다 훨씬 가볍다. 열 내구성이 뛰어나 음식을 부거나 튀길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손잡이 부분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편하게 잡을 수 있다. 그린과 라즈베리 색상이어서 화사한 느낌을 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네이처닉 유로시스템 식기건조대

色 입은 플라스틱 식기건조대 ... 獨 디자인상 수상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상)

주방용품 전문기업 네이처닉은 지난달 28일 TV홈쇼핑에서 '대박'을 냈다. 한 시간 방송 만에 약 2억 5000만원어치의 '유로시스템 식기건조대'를 팔았다. 주문 전화가 3000여통에 달했다. 예상보다 많은 주문을 맞추느라 며칠간 밤샘 작업을 해야 했다.

오대운 네이처닉 대표는 "미국 월마트와 메이시백화점 매장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며 "작년 80억원대 수준이던 매출이 올해 200억원을 훌쩍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소재에 디자인 입혀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에 뽑힌 네이처닉의 유로시스템 식기건조대는 TV홈쇼핑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제품이다. 작년 공영 홈쇼핑인 '아임쇼핑'에서 하반기 최대 판매 품목 1위에 올랐다. 올해는 GS홈쇼핑 등 민영 홈쇼핑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디자인이 최대 강점이다. 기존 식기건조대는 금속 소재를 주로 썼다. 굵은 철사를 구부려 놓은 듯한 모양새가 많았다. 네이처닉 제품은 플라스틱이 주된 재

료다. 기본 뼈대가 모두 플라스틱이다. 그릇을 세워 놓는 부위만 금속 소재를 썼다.

플라스틱은 색을 입히기 좋아 디자인에 유리했다. 무미건조한 식기건조대에 흰색, 연두 등 밝은 색상을 넣었다. "주방이 환해졌다"는 소비자 반응이 많았다. 이 디자인으로 지난해 세계 3대 디자

흰색·연두색 등 다양한 색상 홈쇼핑서 '대박'

품질위해 국내생산 고집 매출 5% 연구개발로 써

인 어워드인 독일 iF상을 받았다.

단순한 제품이지만 곳곳에 기술이 녹아 있다. 하단에 달린 배수구는 설치지 직후 그릇에 묻은 물을 싱크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물 받침대에 물을 모았다가 일일이 버려야 하는 일반 식기건조대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배수구는 길이뿐 아니라 방향까지 360

도 조절할 수 있다.

조립도 간편하다. 2단 식기건조대는 5개 플라스틱 프레임을 구멍에 끼우기만 하면 완성된다. 이 간편 조립법으로 특허까지 취득했다. 오 대표는 "조립식으로 바꾼 뒤 배송 포장 부피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전했다.

◆"공장 두 배로 확장"

오 대표가 주방용품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0년의 일이다. 그전에는 시계 유통 및 제조업을 했다. 백화점에서 도마를 산 것이 계기였다. "별것도 아닌 도마가 10만원 넘게 팔리는 게 신기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시험 삼아 플라스틱 도마를 만들었다. 플라스틱 시계를 제조한 경험 덕분에 소재를 다루는 것은 자신 있었다. 고기, 생선, 채소 등 용도별로 나눠 쓰는 '인덱스 도마'였다. 이 도마가 서울 강남에서 인기를 끌었다. 도마에 처음으로 케이스를 도입한 게 기억났다. 케이스에 속 들어간 도마는 보기도 깔끔할 뿐 아니라 위생에도 좋았다.

오 대표는 최근 경기 고양시 공장 부지 인근에 추가로 땅을 매입했다. 3708㎡인 공장 부지를 두 배로 확장할 예정이다. 주문이 밀려들어 생산 설비와 창고가 더 필요해서다. 그는 원가를 줄이려면 중국 등 해외로 나가는 게 유리하지만 국내 생산을 고집한다. 오 대표



오대운 네이처닉 대표가 경기 고양시 본사에서 '유로시스템 식기건조대'의 디자인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는 "원가를 낮추는 것보다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출의 5%를 연구개발(R&D)에 쓴다. 30명 안팎의 직원 중 디자인이 4명이나 된다. 디자인 등록 건수가 35개에 이른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겐 수백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오 대표는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신뢰 있는 브랜드로 키우는 게 목표"라며 "당장 급하더라도 원가를 후려쳐 매출을 더 없애고 사각지대의 시야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 만에 입소문이 났다. CJ대한통운 하나종합물류 등 운송업체들로부터 제품을 사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완성된 제품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성능을 향상하기로 합의하고 납품을 시작했다. 위노비엔티는 6개월간 시운전을 통해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제품을 지난달 선보였다."

박 대표는 올해 안에 기능이 향상된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블랙박스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미러링 기능을 추가하고 크기도 9인치, 10인치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주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www.kwpower.co.kr

인문과 신뢰의 100년 기업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연금발전소!

99KW 설치기준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 일시 :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PM 2시
- ▶ 장소 : 대구 인테르고 호텔 본관2층 아랑매홀
-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300
- *예약접수 선착순 50명*

태양광발전소 분양

- 충북 제천시 잔여분 99KW 5기/150KW 1기
- 경북 의성군 잔여분 99KW 7기
- 충남 금산군 1MW 4기
- 경북 성주군 2MW 1기
- 경북 영천시 3MW 1기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안정성 -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 한국전력과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보장

수익성 - 투자금 대비 어떠한 금융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

- 25년 모듈 효율 보증 (30년 운영)

신기후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UN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한국전력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99KW 설치기준, 평균 250만원 월수익

- 태양광 발전 예상수익률 10% 이상

-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토지 분할 등기 이전)

상시 방문 상담 가능

1644-4192

010-5110-5660

신 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대 2013-10-010328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회왕로 164(만촌동 1331-8)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네이처닉-유로시스템 식기건조대 (031)901-8142 △오난코리아-루메나플러스 캠핑용 LED 랜턴 (070)5030-1947 △쓰리스타-야의 간편 조리기구 세트 (032)766-8700 △테바-바로톡 (041)532-7605

버스·트럭 사각지대 보여주는 블랙박스

위노비엔티 '팬타뷰' 통학버스 사고서 착안

지난해 3월 경기 광주시 한 어린이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통학용 승합차가 차량 오른쪽에서 있던 네 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운전자는 사고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블랙박스업체 위노비엔티 박성환 대표는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제품 개발에 나섰다. 10여년간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체에 몸담은 경험상 중대형 차량의 우측이 운전자 시야 확보에 가장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다. 카메라를 통해 시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장치를 내놓기로 한 것. 당시 그는 코스타 상장사 위노바에서 신사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운전자 부주의도 원인이지만 물리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창업 1년 만인 지난달 중대형 차량용 블랙박스 '팬타뷰'(사진)를 내놓았다. 차량 앞뒤와 양옆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도 추가로 한 대를 배치했다. 카메라만 총 5대다. 7인치 모니터로 차량 전후좌우를 비롯 우측 문과 바퀴 근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상용차 전용 5채널 제품이다.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은 전파간섭이었다. 박 대표는 HD급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하기로 했지만 디스플레이와의 거리가 5m를 넘어선다면 데이터 전송이 어려웠다. 굴삭기 트럭 버스 등 차량 앞뒤 길이가 5m 이상인 중대형 차량에 적용하려면 통과가 필요했다.

박 대표는 카메라의 화질을 한 단계 낮춰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7인치에 불과한 모니터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 고화질 카메라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대신 차량 주변을 한눈에 모니터

링할 수 있는 최적의 배치 지점을 찾기 위해 연구에 집중했다.

초기 모델 개발에 성공하고 대형 운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험 서비스를 했다. 화질엔 문제가 없었고 사각지대의 시야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한 달 만에 입소문이 났다. CJ대한통운 하나종합물류 등 운송업체들로부터 제품을 사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완성된 제품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성능을 향상하기로 합의하고 납품을 시작했다. 위노비엔티는 6개월간 시운전을 통해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제품을 지난달 선보였다.

박 대표는 올해 안에 기능이 향상된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블랙박스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미러링 기능을 추가하고 크기도 9인치, 10인치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주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중기청, 프랜차이즈 지원대상 44곳 선정

중소기업청은 '2016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으로 가맹본부 44곳을 선정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에 본부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은 독립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프랜차이즈 매뉴얼·시스템 개발비, 브랜

드 구축 비용 등을 도와준다.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가맹본부 임직원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한편 이들 업체의 해외 박람회 참여와 해외 진출도 돕겠다"고 말했다.